

# 동양그룹, 법정관리 한일합섬 인수

12월26일 우선협상대상자로 동양메이저 선정 ... 2007년 상반기 마무리

동양그룹이 법정관리중인 한일합섬을 인수한다.

동양그룹은 12월26일 그룹의 지주회사격인 동양메이저가 한일합섬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동양메이저는 12월26일 한일합섬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2007년 상반기에 최종 인수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동양메이저는 인수가격으로 2000억원 이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그룹 관계자는 “섬유·건설·레저 및 공조설비 제조 등 한일합섬의 주요 사업이 동양그룹과 충분히 시너지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해 인수에 나선 것”이라며 “한일합섬이 수원공장, 속초 영랑호리조트 등 알짜 부동산을 보유한 것도 인수배경이 됐다”고 밝혔다.

동양그룹은 한일합섬의 섬유부문에 대해서는 기존 유통망을 강화해 의류 브랜드를 키워나갈 계획이다.

건설은 동양메이저 건설부문과 연계 운영하고, 공조설비 부문은 동양매직의 산업기계부문과 합쳐 종합 플랜트 설비회사로 육성할 방침이다.

또 레저 부문은 동양레저와 함께 금융 및 제조부문에 버금가는 동양그룹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한일합섬은 1980년대 국내 섬유원사 시장을 40% 이상 점유하는 등 승승장구했으나 지나친 확장경영의 여파로 자금난에 빠져 1998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2006년 상반기에는 787억원의 매출에 283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2/27>